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국인 소비 지출 거침없다... 12월이나 1월에 금리 인상?
- WSJ: 필라은행총재, “차입비용 커져 연준 금리 중단 지속되야”
- WSJ: 연준, 데빗카드 사용 수수료 인하 검토

#### [미국 금융]

- WSJ: 모건스탠리, 투자뱅킹 매출 감소로 수익 9% 감소

#### [의료보험]

- Bloomberg: 미 가구당 직장 의료 보험료 연 평균 2만4천달러

#### [주택]

- Bloomberg: 미 주택 착공 건수 증가
- CNBC: 1995년 이래 모기지신청 건수 가장 낮다

#### [중국경제]

- WSJ: 중국경제, 부양책으로 활기 보이지만 역풍 커져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 항공 서비스, 잦은 지연에 고객들 불만 크다
- WSJ: 미 근로자들, 팩데믹 이후 병가 일수 늘어
- Bloomberg: 아마존, 드론 이용해 의약품 배달 서비스 개시
- CNN Business: 빅토리아 시크릿, 장애 여성들을 위한 맞춤 속옷 출시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The American Consumer Keeps Splurging

#### 미국인 소비 지출 거침없다... 12월이나 1월에 금리 인상?

- 금리는 높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팬데믹 저축은 줄고 있다.
- 그러나 소비는 늘고 있다. 여기에 한가지 고민은 소비 지출 강세가 계속된다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연준의 상황이 복잡해 질수가 있다.
- 연준은 10월말부터 양일간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 그런데 경제 활동이 예상외 등으로 오는 12월이나 1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WSJ 기사

#### WSJ: Why One Fed Official Is Ready to Stop Raising Rates

## 필라은행총재, “차입비용 커져 연준 금리 중단 지속되야”

- 필라연방은행 총재인Patrick Harker은 어제 화요일 인터뷰에서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고용과 소비 강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차입 비용이 경제을 둔화시키는 지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는 “지난 20개월간 빠른 금리 인상 행보가 인플레이 둔화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파악하기 위해 일단 내년 초 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 기사

## WSJ: Fed to Propose Lowering Debit-Card Swipe Fees 연준, 데빗카드 사용 수수료 인하 검토

- 연준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이 데빗카드(직불카드)로 쇼핑할때 은행들에 지불하는 사용 수수료를 낮춘다는 것이다.
- 현재 소매업체들은 대형 카드발급업체에 거래 금액의 0.05%외에 21센트를 추가한 금액을 지불하는데 2011년 연준이 이런 기준을 정했다.
- 연준은 다음주에 이같은 제안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인데,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WSJ: Morgan Stanley's Earnings Fall 9% on Lower Investment-Banking Revenue

### 모건스탠리, 투자뱅킹 매출 감소로 수익 9% 감소

- 요지: 특히 합병 인수 관련 기업 고객에 대한 수수료가 30% 이상 감소했다.
- 모건 스탠리 3분기 수익이 작년 수익과 비교해 9% 감소했다. 투자 뱅킹 매출이 27%로 감소한 9억3천9백만불이고, 인수 합병 관련 기업 자문 수수료가 30%이상 떨어졌다.
- 채권 인수 주선업무로부터의 매출도 떨어졌는데 이 은행은 주식 인수 주선 업무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한편 투자뱅킹 매출 관련해 JP모간은 약간 떨어진데 반해 시티뱅크와 뱅크오브아메리니는 증가, 골드막삭스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 기사

## [의료보험]

## Bloomberg: Health Insurance Premiums Now Cost \$24,000 a Year, Survey Says

### 미 가구당 직장 의료 보험료 연 평균 2만4천달러

- 팬데믹 이후에 이른바 건강 관리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보험이 올해 경총 뛰었다. 인플레이가 전반적인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이라 고용주와 종업원에게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 KFF의 2천여 업체 대상 관련 설문에 따르면 고용주 지원 종업원 가구당 의료보험은 올해 7% 늘어난 2만4천불.
- 작년의 1% 인상률보다 컸으며 개별 고용주 보장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상승했다.
- 일반적으로 의료 보험 부담은 고용주가 대체로 71%를 부담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주택]

## Bloomberg: US Housing Starts Rise on Pickup in Multi-Family Projects

### 미 주택 착공 건수 증가

- 9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다세대 주택 착공 증가에 힘입어 늘었다.
- 오늘 수요일 발표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8월에 올해 가장 크게 감소했던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달 7% 증가했다. 특히나, 다세대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에 비해 17% 이상 상승했다.
- 그러나, 주택 건축 신청 건수는 1백 47만 건으로 감소했다.
- 반면에 단독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증가해 2022년 5월 이후로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현재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하였으며, 이는 급증하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와 높은 주택 가격이 원인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CNBC: Mortgage demand falls to the lowest level since 1995 as interest rates near 8%

### 1995년 이래 모기지신청 건수 가장 낮다

- 최소 72만6천 2백불의 용자 잔고 30년 고정 평균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7.67%에서 7.70%로 상승했다.
- 이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 건수는 전주 대비 6% 하락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시기 대비 21% 감소한 것이다.

- 주택 담보 대출 재융자 신청건수는 전주에 대비 10% 하락했으며, 전년 같은 시기 대비해서는 12% 하락했다.
- 주택담보 대출 금리의 상승은 예상보다 양호한 미 월간 소매 매출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 [중국경제]

#### WSJ: China's Economy Gets Boost From Stimulus, but Headwinds Grow 중국경제, 부양책으로 활기 보이지만 역풍 커져

- 요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스라엘과 하마드 전쟁과 미국과의 갈등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중국 경제가 소프트 패치(일시적인 경기 주춤)에서 3분기에 일어서고 있다. 정부 경기 부양책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수개월간의 약세 이후에 생산 활동이 안정화되고 있다.
- 경제 성장도 전분기와 비교 연율로 감소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으나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를 웃돌아 4.9%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속적인 부동산 리스트, 주택 판매 부진, 소비자 신뢰도 약세에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글로벌 환경이 어두운 상황이다.
-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는 역풍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 주도의 서구와의 갈등, 노령화, 기존 부동산 주도의 투자에서 부터 벗어나 소비와 첨단 제조로 경제를 탈바꿈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수년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Business Travel Would Be Booming—if Flying Weren't So Miserable

##### 미 항공 서비스, 잦은 지연에 고객들 불만 크다

- 비행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예약이 차서 출장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제때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 플라이트 어웨어(FlightAwar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9월 동안 미국을 오고 가는 항공편의 22%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연율이 2019년 같은 시기에 비해 대략 5% 상승한 것이다.
- 항공사들은 또한 팬데믹 이전에 비해 더 적은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들이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등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 항공 산업 분석가들은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정책을 바꾸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항공편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대비해, 고객들이 일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예약 승인 절차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WSJ 기사

### **WSJ: Bosses Have a Problem: People Are Actually Using Sick Days** **미 근로자들, 팬데믹 이후 병가 일수 늘어**

- 직원들 사이에서 병가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상사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랫동안 미국의 근로자들은 병가를 내지 않는 것이 일종의 명예라고 보았다.
-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 매해 미국인들의 병가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COVID-19와 RSV와 같은 질병의 증가가 지금 상황의 원인일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진들은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말한다.
- 글로벌 비즈니스 페이먼트 기업인 Fleetcor에서 최고 인사 책임자를 맡고 있는 Crystal Williams는 이전의 신입 직원들은 회사에 있으면서 선임 동료나 상사가 하는 행동을 배우곤 했지만, 오늘날에는 사무실에서 주 5일 근무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신입 직원들이 선임 동료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한다.
- 또한, 새크라멘토에 있는 노인 서비스 기관에서 인사 담당자로 관리했던 Lisa Frydenlund는 최근에 직장에 새롭게 도입된 근무 방식에 큰 좌절을 겪은 이후 병가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병가에 대한 인식이 완화된 것 또한 병가 사용의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

WSJ 기사

### **Bloomberg: Amazon Starts Delivering Medications by Drone in Texas City** **아마존, 드론 이용해 의약품 배달 서비스 개시**

- 아마존이 텍사스에서 드론을 이용해 처방 의약품을 배달하기 시작했다.
- 이 기업은 최근에 College Station의 테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마존 의약품 고객들에게 드론 배송 접수를 시작했다.
- 의약품을 신속하게 배달하는 것은 드론 업계의 유력한 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 그러나, 아마존의 드론 배송 프로그램은 기술적 난제, 프로그램 담당 직원의 높은 이직률 그리고 테스트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겪는 등의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Victoria's Secret will sell intimate apparel for women with disabilities****빅토리아 시크릿, 장애 여성들을 위한 맞춤 속옷 출시**

-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 Secret)이 처음으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위해 디자인된 속옷을 출시한다.
- 이 기업은 화요일에, VS & PINK Adaptive 상품 라인 출시를 발표했으며, 고객들은 이 상품을 온라인과 전국의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번 제품의 특징은 자석 방식의 닫이(closure), 부드러운 원단, 길이 조절과 변형 가능한 전면 어깨끈, 그리고 자석 방식의 측면 닫임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팬티이다.
- 빅토리아 시크릿의 이런 움직임은 메이저 브랜드가 틈새시장을 통해 소수의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을 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BofA CEO "연준, 소비 둔화에 성공...내년 중반 경기 저점"**

**"소비자와의 싸움서 승리...인플레이, 중간소득층 힘들게 해"  
직불·신용카드 지출 성장세 완화..."경기 연착륙 기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소비자 지출 둔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미국 2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최고경영자(CEO)가 내놨다.

브라이언 모이니한 CEO는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목표로 금리를 인상해 왔고 미국의 소비자 지출을 성공적으로 둔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모이니한 CEO는 "솔직히, 연준이 미국 소비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소비는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는 "문제는 다음에 일어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